12만 조선인 '恨' 서린 교토 '耳塚'(귀무덤) 고혼을 천도하다

일본 교토 이총 추모봉행위, 4월 30일 진혼재 봉행

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붓다봉사단 100여 불자 모여 불교위령재 열어
일본 스님 · 지식인들 대거 참여 눈길, "진정한 관계 개선, 참회서 시작"







"낮선 땅에 묻혀 수십만 귀를 열어 두어도
끝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한 서린 애혼 영가이시여!
여기 한국의 후손들이 진혼재를 올리오니
애절한 한을 잠시 내려 놓으소서!"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대한민국나라사랑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일본 교토이총 추모진혼재 봉행위'(총재 목탁 스님)는 4월 30일 교토 귀무덤에서 '임진왜란 희생 애혼 영령 추모 진혼재'를 봉행했다.

귀무덤은 400여 년 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일으킨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전리품으로 12만 6000여명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 이를 묻어놓은 곳을 말한다. 이날 진혼재에는 봉행위원회 총재 목탁 스님, 회장 혜정 스님, 봉행위원장 청명 스님 등 한국 스님들과 일본불교협회장을 역임한 불광사파 서덕사 최고고문 오타니 기하쿠 스님, 정토종 칭명사 주지 샤쿠 하쿠신 스님 등 스님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자 및 재일교포들과 아마키 나오토 교토평화모임 대표(前 레바논 대사), 나까노 요우이치 교토시의원, 민단신문 · 중외일보 등 일본언론기관 등의 관계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진혼재는 범패 등 불교전통의식과 함께 천도의식으로 이어졌다. 오타니 기하쿠 스님 등 일본 스님들이 참회와 축원을 올렸으며, 아마키 나오토 대표의 참회발언 등이 이어졌다.

〈귀무덤〉 책을 펴낸 아마키 나오토 대표는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총에 관한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한일관계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 과거사를 반성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야 한다. 이총 추모 진혼재는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은 육법공양을 올리고 애도송을 합송했으며, 한국에서 준비한 추모의 글을 낭독하여 대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총재 목탁 스님은 "세계가 화합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때"라며 "국제불교지도자 스님들이 앞장서고 한국불교계의 각 종단 스님들과 불자들이 힘을 모아 자리이타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은 자비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매년 4회씩 10년간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회당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한 물품은 총 2억여원에 달한다. 이밖에 교도소 재소자 교화 지원에도 나서 7회에 걸쳐 6천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2월 23일에는 튀르키예 지진 당시 BBS불교방송 모금창구에 1천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성금모금 특집방송에는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총재 목탁 스님을 비롯해 혜정 스님, 김재은 의전1단장, 이정희 의전2단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모집

전국 각 지역 지부장 및 지역봉사단원을 모십니다
국내외 남녀 자원봉사자 환영합니다

지역 불교지도자 : 종단 불문, 포교에 나선 출가자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 남성분과, 여성분과 활동 재가자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활동문의 02-733-5665